

# 인파 북적이는 벚꽃놀이... 마스크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 실내의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첫 봄 나들이 "고령층 등 고위험군, 마스크 착용해야 안전"

봄꽃이 만개하면서 주말 사이 유원지에 상춘객이 몰리자 고위험군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일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주말부터 벚꽃 등 봄꽃 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기온 상승으로 서울 벚꽃이 지난해보다 10일 빠른 지난달 25일에 개화했다. 특히 올해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봄 나들이철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1월 해제됐고 3월20일부터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졌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해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적용되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 마스크 착용을 할 수는 있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경우 '3밀'(밀집·밀폐·밀접)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80세 이상은 1.94%, 70대 0.45% 등 고령층의 경우 전체 평균(0.11%)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치명률이 0.05%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는 고위험군에게 여전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위험성을 고려하듯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모두 착용

하겠다는 응답이 45%였다.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는 응답은 20대가 50%인데 반해 70대 이상은 17%로 매우 낮았다. 코로나19는 침이나 콧물 등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어서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이라면 본인의 필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안전하

다"고 말했다. 한편 유행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3월26일~4월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08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46.7명이고 같은 기간 평균 중환자실 가동률은 25.9%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비상상태 해제 선언 여부와 국내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격리 의무 해제 등 3단계 일상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이슬기자



흐드러지게 핀 양재천 벚꽃. 완전한 봄 날씨를 보인 2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 일대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 고용부, 중소 건설공사 불시감독 나설 예정

### '사망사고 50% 급증'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분기를 집중 감독·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불시감독과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 1분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61명으로 지난해(73명)보다 12명 감소했다. 그러나 중소·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 금액 50억~800억원 현장의 사망자는 16명에서 24명으로 50% 급증했다. 공사금액 1억~50억원의 경우 27명에서 23명으로 4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고용부는 4~6월 불시감독에 집중해 추

락 등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과 관련한 안전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금액 50억~800억원 현장은 올해 감독 목표 물량의 40%에 해당하는 13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1억~50억원 현장의 경우 평가등급이 저조한 전문 지도기관의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작해 500여개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원하고, 핵심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환기자

## 기껏 구조했더니...소방대원 때린 50대 주취자 집유

자신을 구조하던 소방 구급대원을 마구 때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소방기 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20분께

전남 나주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급대원인 소방사 B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뒤로 넘어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을 도와 주려고 안전벨트를 채운 B씨에게 '답답하다'며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함의를 통해 피해 소방대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선욱기자

## 미성년 후배 상습 폭행한 20대, 징역 선고

법원이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미성년자인 동년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미성년자약취, 피약취자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함께 생활하던 후배 B(18) 군이 아무 이유 없이 연락받지 않자, 그해 10월 24일 자정 청주시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B군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B군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C씨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

의도 있다. 이어 B군을 차량에 태워 몸을 테이프로 묶고 6시간 동안 약취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대 시절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보행자를 때려 지난해 7월 14일, 10월27일 각각 폭행죄,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 성향이 높아 보이고 피해자가 입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한 점,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